

# 일본 사회당을 보면서 제일 골때렸던 인물이 있었는데

○○

아사누마 이네지로 서기장이 바로 그 사람이었음  
1960년 안보투쟁 당시 도쿄 찌르기 사건으로 극우 인사에게 살해당한 바로 그 사람인데

전전에는 사회주의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 
1930년대에는 군국주의에 협력한 사회대중당에 참여해서  
중일전쟁에 찬성하고 관제정당인 대정익찬회에 들어가더니,  
심지어 1940년 의회에서 반전 연설을 한 것으로 인해 같은 당 소속의 사이토 다카오 의원이 제명당할 때도 찬성 투표할 정도로 변절함  
2년 뒤에 갑자기 변심해서 정치 활동을 그만두었는데,  
이 덕분에 전범재판을 피할 수 있었지

그랬던 사람이  
전후에는 자민당으로 가지 않고, 일본 사회당 결성에 참여해서 활동했는데  
한국전쟁 때는 남한과 유엔군을 지지해서 유엔군을 위해 헌혈까지 했었던 사람이  
1959년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"미 제국주의는 일, 중 양국 인민의 공동의 적"이라는 발언을 함

중일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우익 성향을 보여줬었던 사람이  
태도를 180도 바꿔서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준 것이 정말 놀라웠었지